

근대초 유럽의 마법 박해 양상 연구

— 성차(性差)에 따른 억압의 변용을 중심으로 —

이 유 나

> 차 례 <	
1. 머리말	4. 마녀 박해
2. 마법(witchcraft)의 기독교적 변용	5. 마법사 박해
3. 민중들에 의한 마법의 변용	6. 결 론

1. 머리말

우리는 흔히 15세기말부터 17세기까지를 근대 초(early modern european period)라고 일컫는다. 이 시기는 중세의 길드 조직이 붕괴되고 경제면에서는 개인주의가,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흥했으며, 사상적인 면에서는 고대부터 생긴 인간의 이상과 예술이 발전된 르네상스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중세의 혼돈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되었고, 오히려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다. 유럽의 근대 초는 여전히 기근과 대역병과 전쟁, 빈곤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혼돈과 광기의 시대였다. 당시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마법과 관련된 죄목으로 화형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 마녀라는 죄목을 쓴 여성의 몫이었다.

이 시기는 종교적 갈등으로 대변될 수 있었다. 중세부터 공식종교였던 기독교는 종교개혁이라는 내부적인 큰 변혁을 겪음과 동시에 여러 다른 종교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했다. 이런 갈등의 해결책은 타협과 화해가 아닌, 탄압과 박해였다. 특히, 뿌리깊은 민중 종교였던 마법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방식은 극단적인 예다.

마녀 사냥은 기독교에 의한 마법 탄압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발생한

* 서울대 박사과정, 종교학

사건이었다. 또한 그 과정은 암울한 시대상황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죽이기였다. 호이징가의 말처럼 마녀 사냥을 지속시킨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맹목성은 마법과 이단이라는 두 개념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앙의 영역 밖에서 행해지던 폭력과 공포 그리고 중요성이 이단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권력에 의해 자행된 마법 박해의 구조는 무엇이며, 그것은 희생양의 성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드러내는가? 우리는 기독교의 마법 박해 과정과 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녀와 마법사의 경우로 구분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작업이 생물학적인 성 구분에 근거해서 위계화된 차별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종교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과 남성의 성차 이데올로기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2. 마법(witchcraft)의 기독교적 변용

유럽 중세의 공식 종교였던 기독교는 항상 위협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비록 기독교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로 인해 개신교의 종교개혁과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이라는 커다란 분수계를 이루었지만, 외부적으로 그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많은 종교 분파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를 비판하고, 세계 종말의 도래를 주장하던 일종의 사회 저항 운동적인 성격을 가졌던 다른 종교 분파들과는 달리 마법은 민중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중 종교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마법의 성격은 당시 민중의 삶과 밀접했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농경을 위한 마법이다. 농경과 관련된 마법의 구체적인 실천 행위였던 농경 의례는 올바른 자연의 순환, 즉 계절과 날씨를 조절해서 풍작을 이루려는 기원의 의미에서 행해졌다. 두 번째로, 의학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수술적인 치료의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그것을 치료하는 행위는 마법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낳기에 충분한 배경을 이루었다. 이러한 불가사의한 병을 치료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신비한 약초들의 효험을 알고, 알 수 없는 주문을 통해 병을

1) Huizinga, J., *Herbst des mittelalters*(1919); 『중세의 가을』, 최홍숙 역(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p.297.

치료하는 나이든 여성들은 민중들에게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여겨짐과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민중들은 이러한 마법의 효력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으며, 마법 또한 민중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심지어 민중들은 그들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마법을 스스로 실연(實演)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마법은 중세에만 존재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법이 세계와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표상하는 인식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절대적인 마법 신뢰는 문자화된 교리(dogma)와 성상(iconography)으로 대변되는 기독교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중세 초부터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악마에 대한 공포를 발전시켰으며, 이단을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시도들을 해왔다.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는 유럽의 출판물과 마법 박해의 중심지였던 독일의 출판물 중 상당수가 악마에 관한 책들이었으며, 마틴 루터와 예수교 성 피터 카니시우스(St. Peter Canisius)의 교리문답에서, 악마는 예수보다 더 자주 언급될 정도였다.²⁾ 악마론은 이단으로 범주화된 사회 저항적 움직임들을 규정짓는 또 하나의 장치 되었다. 기독교가 선(善)의 담지자로서 신을 신념으로 삼는 것에 비해, 이단은 악(惡)의 담지자로서 악마를 그 신념으로 삼게 되었다. 교회는 대대적인 이단 사냥에 착수하였고, 이는 마법을 행하는 남성들과 여성들, 정신병자들, 매춘부들, 동성애자들과 같은 '모든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되었다.³⁾

악마론은 또한 자연적인 주술로서의 마법이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적 실천 행위로 변형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 사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악마론에 근거한 마법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에 의하면, 마법은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악마의 도움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런 도움을 받은 마법사·마녀들은 결과적으로 악마를 숭배하는 이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⁴⁾ 이렇게 '악마적'인 성격이 부과된 마법은 사회 엘리트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2) Monter, William., "Protestant Wives, Catholic Saints, and the Devil's Handmaid: Women in the Age of Reformations" in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p.204.

3) 이단사냥은 1184년에 교황 루치우스 3세가 이단척결 칙서를 반포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1229년에 이노첸트 3세가 당시 주요 이단이었던 알비파를 제거하기 위한 십자군 원정에 착수하고 이어 1233년에 그레고리우스 9세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4) 박명건, 「중세 유럽 마법의 역사적 변천 연구 - 악마적 마법 개념의 형성과정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논문, 1998. p.19.

낸 하나의 문화적 생성물이었던 것이다.

이런 문화적 생성물은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더욱 체계화, 구조화된다. 교회 권력자들은 교회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아래 놓인 단일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라는 장치를 활용했다. 즉, 종교재판소는 교회의 지배를 벗어난 이들을 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갈수록 시들어 가는 교회 지배권을 보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마녀 사냥은 바로 이 종교재판소가 벌였던 대대적인 '타자 사냥'의 일환으로, 지배층의 타자로서 민중이자,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이고, 여성 내부의 타자로서 소외된 여성이었던 특정한 여성들에게, 그야말로 '타자 중의 타자'에게 가해진 폭력이었다.⁵⁾

3. 민중들에 의한 마법의 변용

그러나 마법 박해에 지배 계급만 개입된 것은 아니었다. 정작 마법이 실재한다는 사실은 민중들의 고발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마법 박해는 민중들의 호응 속에 이루어진 광란의 축제였던 것이다. 비록 악마적 마법 개념의 체계화를 전제한 것은 사회 엘리트들이었지만, 그것을 수용했던 것은 다름 아닌 민중들이기 때문에 마법 박해는 광란에 휩쓸렸던 사람들의 의식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민중들에게 있어서 마법은 양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계속되는 두려운 현실들 속에서 마법은 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잘되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공포스럽고 두려운 대상이기도 했다. 이는 마법의 효과를 믿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마법의 불가사의한 힘은 자칫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⁶⁾ 실제로 민중들은 마법을 행하는 여성들이 해로운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방식으로서 반(反)-주술을 행하기도 했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이 해로운 힘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민중들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가난, 기근, 전염병들은 마법의 해로운 힘, 그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비가

5) 박규태 외, 『종교읽기의 자유』, 서울:청년사, 1999, p.97.

6) 마녀들이 인간에게 행하는 해로운 주술의 목록들은 여러 가지로 제시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죽음, 성적 무능력, 불감증, 예기치 못한 기후, 흉작, 가족의 죽음, 친구를 잃음 등이 그 예이다. Kors, Alan. C ed., *Witchcraft in Europe 1100-1700*, (Philadelphia: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p. 10.

시적인 마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진 가시적 대상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전이되었다. 이렇듯 마법과 마법을 행하는 가시적 대상들에 대한 공포는 기독교가 제시한 '악마적 이단론'과 맞닿을 수 있었다. 당시 기독교는 출판물과 설교, 고백서, 교리문답 등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신학적으로 개념화된 악마적인 마법을 가르쳤고, 이는 보다 대중적인 작업들(인쇄물, 민요)과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⁷⁾ 민중들은 지배계층에 의한 이론적인 악마적 마법개념을 획득한 후, 마법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종교재판소에 고발하는 적극성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기독교와 민중에 의해 변용된 마법에 대한 당시의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다. 15세기 작가들은 마법의 기이한 像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태양이 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잠든다. 마녀들은 그들의 침대에 살며 시 기어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아내나 혹은 남편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들은 사바트(sabbat)⁸⁾를 준비한다. 모임 장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걸어서 온다. 그러나 멀리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공중을 날 수 있도록 고약을 바르던가 아니면 동물이나 빗자루 등을 타고 날아서 간다. 그들은 지하실, 동굴, 혹은 버려진 장소에서 모여, 10-20명 정도의 동료들과 만난다. 만일 신참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를 위한 입회식은 그 모임의 일상적인 일들과 함께 진행된다. 이때 그녀는 의식(cult)의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도록 억지로 강요당한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참석할 때는 세례 받지 않은 아이의 屍身을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 집단의 구성원임을 인정받는다. 그녀는 입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와 성찬식을 모독함으로써 그녀의 배교를 증명한다. 다음에 그녀는 그 儀式의 우두머리인 악마의 향문에 음란한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 주인을 숭배한다.

입회식이 끝나면,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향연과 음주에 참석한다. 마녀들은 그들이 일전에 죽인 아이들의 屍身을 가지고 와서는 성찬식을 서투르게 모방한다. 이때 아이들은 악마의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

연회 후, 햇볕은 꺼지고 무차별한 성교가 시작된다. 성교가 끝나고

7) 기독교는 출판물, 설교, 고백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신학적으로 개념화된 마법을 가르쳤고, 이는 대중적인 작업들(인쇄물, 민요)과, 법정과 교수대의 공포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Holmes, Clive., "Women: Witness and Witches" in *Past and Present*(No.140, 1993).

8) 본래 유대교 안식일로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가리키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마법의 집회를 의미한다. 프랑스어 문헌에는 동의어로서 Synagogue(시나고그)가 사용된다.

마녀들은 그들의 지배자의 퇴장이 있을 후, 잠자는 배우자의 곁으로 돌아온다.⁹⁾

4. 마녀 박해

이런 마법에 대한 통념은 잔혹한 고문과 학살을 수반한 종교 권력자들의 마녀사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악마에 대한 공포는 민중을 동요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악마의 가시적인 표상인 마녀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와 국가, 그리고 민중들은 인간의 행태를 취한 가상의 괴물들에게 불안한 사회적 상황의 책임을 전가시켰다.

마법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혹독한 고문에 의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담론화 되었다. 특히, 마녀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신명심판(神明審判)이라는 고문을 받았다. 그것은 그 몸에 무거운 바위를 묶고 강이나 운하에 던져서 혐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물 위로 떠오르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증거로 마녀임이 입증되는 반면, 가라앉으면 마녀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종교재판소는 기꺼이 고문을 행했으며, 그것은 종교법으로 정당화된 것이었다. 이런 고문을 통해서 마녀로 기소된 사람들은 종교재판관들의 의도에 맞는 고백을 해야했고, 그 고백은 다시 마법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마법에 관련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병을 행했으며, 나이가 많이 든 경험과 전통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혐의는 엘리트들과 민중들의 공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통해서 구체적인 마녀 박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539년에 종교 개혁의 도시인 제네바에서 자네트 클래르(Jeanette Clerc)란 여자가 체포됐다. 그녀는 많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이웃의 병든 소를 약초로 치료했지만, 그 소는 죽었다. 또 그녀는 다른 이웃 사람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후 그 집 소는 일하길 거부했다. 그녀가 말을 물자 그 말은 미쳐버렸고, 그녀가 어린 소녀에게 사과를 주자 그 후 소녀는 병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녀가 준 음식을 먹은 한 농부는 검은 액체를 토했다고 한다. 수년 전에 남편 친척의 얼굴에 무슨 가루를 뿌려 죽게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9) Russell, J. B., *A History of Witchcraft: Sorcerers, Heretics, Pagans*(London: Thames & Hudson, 1980) p.37.

법정에서 그녀는 새로 산 신발을 잃어버린 후에 화가 나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녀의 이웃들이 부과한 모든 악행(Maleficia)을 자백했고, 그녀가 참석한 악마적인 집회(sabbat)에서 행했던 그녀의 활동 또한 자백했다. 악마의 이름은 시몬이었으며, 그녀는 악마와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왼쪽 팔에 키스하면서 경의를 표했으며, 그는 그녀의 오른쪽 뺨을 때려서 그녀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삼았다. 그녀는 마치 오늘 한 것처럼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신과 성모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녀는 14일 동안 네 번의 고문과 심문을 받은 후에 이런 주장을 했으며, 결국 처형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다.¹⁰⁾

여성들은 주술적인 마법을 사용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치병을 했지만, 그 결과는 민중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들은 자신들의 삶에 해를 입힐 것이라는 공포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그런 악행을 행했다고 의심되는 여성들을 고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악마론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관점을 피고에게 적용하고, 피고의 행동을 악마적 마법의 담론으로 해석하고 또 그런 해석을 회유와 협박으로 피고에게 강요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심판관들이었다.¹¹⁾ 종교 재판소에서 진행된 마법 재판에서, 심판관들은 마녀들의 악행보다는 마법의 악마적 혹은 이교도적 측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민중들에 의해 고발된 마녀의 악행 내용은 재판과정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재판과정에서는 기독교에서 금기시하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금기들이 여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우선,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의례히 남성으로 표상화된 악마와의 계약을 맺었다. 즉, 악마와의 육체적인 결합(incubi, succubi)을 통해서 마녀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내준다는 것이다. 또한, 마녀는 집단적인 규합인 악마적 의식에 참석해서 신(神)과 마리아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는 신을 부정하는 불경죄를 범한다는 점에서 마법이 이단으로 규정되는 여지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마법사들간에 혼음난교(orgies)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생긴 아이들은 죽여서(infanticide) 악마에게 다시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이다. 고문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마법에 관한 새로운 담론들은 당시 기독교의 여성혐오주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는 기존의 여성에게 부과된 악(惡)의 개념이 투

10) Monter, *Ibid.*, p.215.

11) Sallmann, *Ibid.*, p.83.

12) 당시 엘리트들의 여성혐오주의는 *Malleus Maleficium*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여성

영된 산물이었다.

계속되는 박해는 비록 그것이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고 할지라도 마녀들의 자백이 사실임을 밝히는 과정이었다. 즉, 마녀들은 기독교에 반(反)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의식을 행했으며,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능력을 획득했다는 담론은 다시 민중들이 마녀로 의심되는 여성을 고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는 마법과 그와 관련된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광란의 기제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5. 마법사 박해

마법 혐의로 기소되고 처형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절대적인 소수¹³⁾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이 행상, 정신병자, 동성애자 등 당시 사회 소외계층의 남성들이었다. 그렇지만 마녀인 여성과는 다른 혐의들이 부여되었으며, 그에 따라 형 집행과 판결 또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탈리아의 베난탄테 경우를 통해서 마법사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581년 11월 25일자 판결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결문으로서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바티스타 모두코는 아펠라 프리올리

혐오적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여자는 홀로 있을 때 악을 생각한다...나는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 욕욕에 사로잡혀 즐거워하는 여자를 본 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까닭에 쉽게 비밀리에 마법을 옹호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자보다 훨씬 연약하다. 그들이 마법에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신적인 면을 생각하거나 지적인 면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은 남자와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여자들은 지적인 면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 신께서 최초로 여자를 만들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는 구부러진 갈빗대로 만들어졌고, 그 갈빗대는 남자의 구부러진 앞가슴의 갈비뼈였기 때문이다...또한 제 2경험인 지나친 정열을 통해서 그들은 피를 탐내고 또 마법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복수를 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마법사 중 여성이 많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기억력이 나쁘다. 이것은 훈련받지 못한 데서 오는 자연적인 약덕이리라. 그들은 의무감도 희박할 뿐 아니라 오직 충동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장이다...여자의 걸음걸이를 생각해보자. 여자의 자세와 버릇을 생각해보자. 여자는 허영 중의 허영이 아닌가...여자는 유혹적이고 남몰래 파고드는 적과 같다. 여자들은 그들의 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살지 않느냐?” Kramer, Hendrich & Sprenger, James., *Malleus Maleficarum*, trans. by, Montague Summers, (London: Arrow, 1986), p.286.

13) 여성과 남성의 박해 비율은 표와 같다.

지방의 행상으로서, 이단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관은 감독관의 입회 아래 신학, 교회법, 세속법에 정통한 여러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공회를 열었다. 재판 결과, 모두코는 이단의 악행을 행했다고 결론지워졌다. 모두코는 배난단테의 한 무리로 자백했다. 그는 매년 세계제일 날, 곧 목요일 밤과 금요일 사이에 집을 나서 아자노 근처의 드넓은 초원, 코네글리아노 '평야'에서 먹고, 마시고, 뛰면서, 그리고 회향나무 막대기를 들고 함께 싸우면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한 그는 마법사들과 배난단테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이 주(主)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이 성스러운 축제는 천주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망발했다. 그는 극단적인 사악함과 범죄성을 보여 주는 이 모든 것을 고해하지 아니한 채로 성찬식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했다.¹⁴⁾

배난단테는 프리올리 지방에서 행해지던 일종의 주술적인 농경 의례의 참여자로 알려져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농경을 위한 마법은 계절과 날씨를 통제하는 주술을 통해서 그 해의 풍년을 비는 기원 행위가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배난단테는 선한 마법사인 자신이 악한 마법사와의 전투에서 이기면 그 해는 풍년이 된다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배난단테들이 싸우러 갈 때는 그 영혼만이 빠져나간다. 일년 중 때가 되면 새벽에 어느 장군이 북소리와 함께 나타나서 마을의 모든 배난단테들을 소집하는데, 이들의 영혼이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고양이·닭 같은 짐승으로 변하거나, 혹은 그 짐승들을 타고 싸움터로 진군한다는 것이다.¹⁵⁾ 하지만, 대중적이고 전통적인 축제였던 농경 의례와 그 참여자도 이단의 그물엔 자유롭지 못했다. 축제는 여전히 천주가 허락하신 것이 아니며 극단적인 사악함과 범죄성을 가진 것이었다.

지역	시기	남성	여성	여성 비율(%)
남서부 독일	1562-1684	238	1,050	82
바젤	1571-1670	9	181	95
제네바	1537-1662	74	240	76
룩셈부르크	1519-1623	130	417	76
베니스	1550-1650	224	490	69
핀란드	1520-1699	316	325	51
영국	1620-1725	75	267	78

Levack, Brian. P., *The Witch-Hunt in Early Modern Europe*, London:Longman Publishers, 1995. p.134.

14) Sallmann, *Ibid.*, p.164.

15)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p.138.

그러나 판결문에 제시된 극단적인 사악함과 범죄성의 대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투옥 6개월. 당국의 명시적인 허가서가 있을 때에는 외출 가능함.

향후 2년 동안 사계제일 금요일 밤마다 단식하며 천주께 그 기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할 것.

향후 5년 동안 1년에 3회, 즉 부활절, 성모 마리아의 몽소(蒙召) 승천일(8월 15일), 성탄절에 관계인은 죄를 고해하고 성찬 예식을 행할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교구 확인서를 종교 재판성청에 제출하거나 발송할 것.

관계인은 자녀를 낳을 때 사용한 옷가지 천을 태워 없애지 말고 종교 재판성청에 발송할 것.

관계인은 참회와 구원을 위해 향후 3년간의 축제일마다 목주의 기도(로사리오의 기도)를 암송하며 천주께 죄사함을 기원할 것

본관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인에게 명한 회개의 고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경감시키거나 면제시켜 줄 가능성을 남겨 둔.¹⁶⁾

이상의 판결문을 판단해 볼 때 마법사는 마녀와는 몇 가지 점에서 그 박해의 과정이 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박해의 시발점이 되는 민중들의 고발내용은 다르다. 마녀 박해의 경우, 민중들은 자신들의 삶에 해를 끼칠 것이라 공포에서 기인한 불행의 책임전가를 위해 마녀를 고발했던 반면, 마법사인 베난단테는 그의 종교적 이단성을 의심받았을 뿐이며 민중들의 공포와는 거리가 멀었다. 둘째,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혐의 내용 또한 다르다. 마녀 박해의 경우, 마녀와 악마의 성교(intercourse), 악마를 위한 의례(sabbat)의 참여자로 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녀와 악마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마녀를 비가시적인 악마의 대리인으로 삼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마법사의 경우, 마법사가 행했다고 주장하는 의례는 사악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작 마법사와 악마의 관계 또는 악마적 징후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불경스럽게 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는다. 셋째, 판결 또한 달랐다. 마녀들은 대부분 잔혹한 고문 후에 사형에 처해지는 반면, 마법사는 그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벼웠다. 여성에게는 참회나 개종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반면, 남성에게는 참회와 개종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그에 따라 형량도 가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베난단테가 스스로를 마법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교적

16) Sallmann, *Ibid.*, pp.164-165.

이단성이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이 강요 되는 과정 속에서 마법의 악마적 성격과 공포스러움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6. 결 론

마법 박해는 결합 있는 제도적 구조의 반성과는 거리가 먼, 그 제도적 구조를 스스로 방어하는 필수적인 수단인 하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중 종교였던 마법은 공식 종교였던 기독교의 논리로 인해서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적인 기독교의 논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중들 또한 비의적이고 신비스러운 마법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때마침 당시의 사회적 정황들이 마법의 두려운 힘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민중들은 모두 당시의 암울한 사회적 정황들을 설명해줄 수 있는 대상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마법을 행하는 가시적인 대상이었던 마녀들과 마법사들이 민중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종교 권력자들의 박해가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했듯이 성차에 따라 그들의 혐의와 판결은 달랐다.

마법의 영역 중에서도 치병을 담당하고 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죄명으로 화형을 당한 반면에, 농경 의례에 참여했던 남성들은 종교적인 이단에 속하지만 교화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개종의 기회가 주어졌고, 때로는 사면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마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법은 그 악마적인 성격이 강하게 부각된 때와 종교적인 이단이라는 점이 부각된 때가 달랐다. 이는 종교적인 여성 혐오주의가 표면화된 결과였다. 여성에게 부과된 악마적인 본성은 여성이 악마적 마법에 더 쉽게 빠진다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에게는 악마적 본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마법의 악마성과는 본성적으로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남성 중심적 사고와 가부장적 제도에 기반한 이런 상상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 자신조차도 희생양 죽이기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종교적, 사회적 여성 혐오주의의 극단을 보여주는 전례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주경철, 『역사의 기억, 역사의 상상』, 서울:문학과 지성사, 1999.
- 김영진, 『광기의 사회사』, 서울: 민음사, 1997.
- 박규태 외, 『종교읽기의 자유』, 서울: 청년사, 1999.
- 박명건, 『중세 유럽 마법의 역사적 변천 연구 - 악마적 마법 개념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논문, 1998.
- Utrio, Kaari., *Eevan Tytt ret*; 『이브의 역사』, 안미현 역(서울 :자작, 2000).
- Sallmann, Jean-Michel., *Les sorcieres, fiancees de Satan*; 『사탄과 약혼한 마녀』, 은위영 역(서울: 시공사, 1995).
- Haris, M., *Cows, pigs, wars and witches: The riddle of culture*(1975); 『문화의 수수께끼』, 박종열 역, (서울: 한길사, 1982).
- MacHaffie, Barbara J., *Her Story: Women in Christian Tradition*(1988) ; 『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 손승희 역, (서울: 이대출판부, 1995).
- Grell and Scribner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in the European Re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 Levack, Brian P., *The Witch-Hunt in Early Modern Europe*, London:Longman Publishers, 1987.
- Ginzburg, Carlo., *The Night Battle: Witchcraft and Agrarian Cult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92.
- Davis, Natalie Zemon.,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 Barry, Jonathan eds., *Witchcraft in Modren Europe: Studies in culture and belie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Barstow, Anne Llewellyn., *Witchcraze: A New History of the European Witch Hunts*, Sanfrancisco: Harper Publishers, 1994.
- Rusell, Jeffery B., *A History of Witchcraft: Sorcerers, Heretics, Pagans*, London: Thames & Hudson, 1980.
- Holmes, Clive., "Women: Witness and Witches" in *Past and Present* No. 140, 1993.